

# 전남대 의학 409점·조선대 의예 407점

## 2026 수능 광주 고3 실채점 결과

한국에너지공대 397점·GIST 391점·광주교대 362점  
시교육청 진학팀 등 분석...19~23일 ‘1대1 정시 상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광주지역 고3 수험생들의 실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인문계열 398점, 자연계열 399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남대 의학과 (지역) 409점, 치의학과 (지역) 405점, 조선대는 의예과 (지역) 407점, 치의예과 (지역) 404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의 실채점 (국·수·탐 표준 점수 600점 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398점, 자연계열 399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 응시기준 (수학 (미적분/기하) +과탐 (2과목), 단 I + II 조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충족한 학생들의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1점, 자연계열 39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397점, 광주과학기술원 (GIST) 391점,

광주교육대학교는 36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국어교육과 368점, 영어교육과 358점, 경영학부 358점, 행정학과 354점, 정치외교학과 353점, 국어국문학과 350점 수준으로 예측했으며,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347점 내외로 판단했다.

자연계열은 의학과 (지역) 409점, 치의학과 (지역) 405점, 약학부 (지역) 402점, 수의예과 401점, 전기공학과 377점, 수학과 339점, 간호학과 (지역) 365점으로 분석됐다.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 (미적분/기하) 지정학과 334점, 수학 미지정학과 (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 모두 가능) 347점 내외다.

조선대는 의예과 (지역) 407점, 치의예과 (지역) 404점, 약학과 (지역) 401점, 간호학과 (지역) 351점으로 예상된다. 단, 정시 선발 비율이 1.6%로 이월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은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



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와 수험생들이 대학 정시모집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채점 결과 전남대 의학과 (지역) 지원 가능 점수는 409점, 조선대 의예과 (지역)는 407점으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수능 실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준 점수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이며 수시 이월 인원 발표 시 확정 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며 “배치 기준 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 국·수·탐 600점 기준이므로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별 한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11일 오후 4시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 (담임교사)을 대상으로 실채점 결과분석설명회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부터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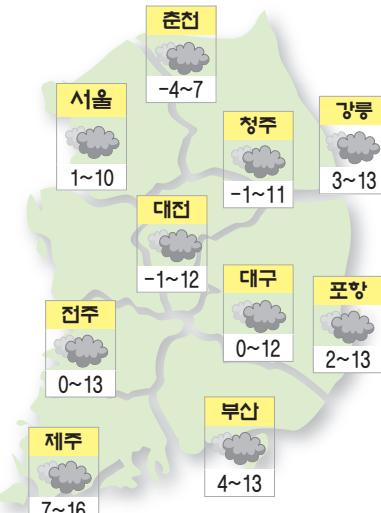
대상으로 ‘수능 실채점 반영 정시모집 지원 전략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9~23일 (일요일 제외)에는 광주 진로진학지원단 및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전문교사 48명이 학생, 학부모 24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대비 1대1 집중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7:30	🌙 맑음	23:07
☁️ 맑음	17:20	🌧️ 맑음	11:56



광주	☁️	1~13
목포	☁️	3~12
여수	☁️	4~11
순천	☁️	0~12
구례	☁️	-1~13
광주	☁️	-2~13
원도	☁️	2~13
목신도	☁️	8~13
전남	☁️	-1~13
진도	☁️	2~12

목포	밀물 (고)	05:40 / 18:32
	썰물 (저)	10:52 / 23:43
여수	밀물 (고)	00:30 / 13:10
	썰물 (저)	06:31 / 19:21

## 법원 명령 어긴 범죄자 실행

만년필 ○...음주 금지 등 법원이 내린 명령

을 수시로 어긴 범죄자에게 실행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1~7월 5차례에 걸쳐 법원이 명령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그는 광주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지난 7월 12일에는 복귀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서 귀가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했다.

각 일탈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에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조사결과 A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임영진 기자 looks@

## 숙박업소 차량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

숙박업소에 주차한 차량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9일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간 혐의 (절도)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5분 서구 풍암동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차량에 침입해 현금 4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사라졌다’

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소 종업원인 A씨는 대리 주차를 위해 투숙객이 맡긴 차량 열쇠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사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보훈부, 5·18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추진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5·18민주유공자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훈

부는 80세 이상 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훈부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전남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해야”

###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참석 거부도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참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는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봤다. 안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윤석열 방어진 보장 권고안’,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행사 참여 불가 결정’, ‘인권위 내부 성 비위’ 등을 이유로 인권위가 구조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인권적 결정과 연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또 단체는 “내란 부역, 5·18 정신 훼손, 혐오와 차별의 방조, 인권 감수성 부재는 각각의 단독 폐해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적 흐름이다”며 “이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락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는 “안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내란 부역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안 위원장의 직위 박탈, 국가인권위 위원 내국인 사과와 사퇴,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보장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 나주금천중, 광주·전남 첫 ‘IB MYP 월드스쿨’ 인증

### 탐구·개념·평가·언어정책·문해력·교사 협력 체제 구현

나주금천중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IB) 중학교 프로그램 (M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금천중은 지난 2023년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이후 2024년 IB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았고, 올해 IB MYP (Middle Years Programme) 월드스쿨 정식 인증을 획득했다.

금천중은 이번 인증 과정에서 국제 바칼로레아로부터 단순한 IB MYP 프로그램 도입을 넘어 IB의 핵심 구조인 탐구·개념·평가·언어정책·문해력·교사 협력체제를

학교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해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나주금천중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탐구 질문을 만들고 출처를 비교하며, 자신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 문화는 개념 기반 수업·준거 기반 평가·협력 설계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탐구 수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학습 인프라도 가능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과 교사들과 협력해 정보 리터러시 교

육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탐구 기반 수업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다.

IB 인증단은 이러한 도서관 중심 리더십 체계가 탐구 수업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사서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학교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또 나주금천중은 IB 교과군별로 고정된 협력 시간을 확보해 교사들이 단일 설계, 평가 기준 조정, 글로벌 맥락 적용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IB 철학을 학



나주금천중 학생들이 도서관 중심 리더십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교 운영 전체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인증 성과는 특정 교실의 개선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하나의 학습 생태계로 전환된 사례에서 주목된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든 금천중학교의 탐구 생태계는 공립학교에서도 철학·구조·실천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국제 기준 학습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박주실 교장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가 어떻게 배움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며 “교사, 행정, 학생, 학부모가 한 방향을 바라본 덕분에 ‘정답을 찾는 학교’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질문하는 학교’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설명하고, 근거를 찾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뚜렷한 변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금천중은 이번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계기로 학생이 사고의 주체가 되는 학습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배움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공동체 프로젝트’ 운영 등 개념 기반 탐구 중심 학습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학교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